

의료수요 갈수록 폭증하는데...인프라는 '뒷걸음질'



더 미룰 수 없는 전남 의과대학 설립 〈상〉 의료 실태

전남 도민의 30년 숙원 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민선 8기에도 추진 여부가 안갯속이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료계는 총파업과 집단 휴진 등을 불사하며 지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의정협의체는 코로나19와 연이은 선거 등 영향으로 2년째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 실태와 그간의 추진 과정 및 의대 설립의 당위성, 향후 전망 등을 세 차례에 걸쳐 모색한다. /편집자주

전남 의과대학 설립이 의료계의 반발 등에 발목 잡혀 추진동력 확보에 실패한 사이 지역 의료환경과 도민 삶의 질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남도 총인구수는 183만 2,803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4만

고령·장애인 취약계층 전국 최고 뇌혈관·소아외과 전문의 '전무' 접근성 취약 이송 중 사망 빈번 연 80만명 유출, 1조5천억 달해

5,198명(24.3%)을 차지해 전체 인구의 4분의 1 수준에 달했다. 전국 평균(17.1%)을 훌쩍 뛰어넘어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2021년 말 기준 전남도 등록장애인은 13만9,868명으로 전체 인구의 7.6%를 차지해 역시 전국(5.1%)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지난 2014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화사회에 진입하는 등 전남은 고령인구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의료수요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전남에는 의료인력을 양성할 의과대학이 부재해 도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의 시도별 간이생명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전남 주민의 기대수명은 82.8세로 전국(83.5세) 최하위 수준이

다. 의료 인프라가 월등히 좋은 서울(84.8세)과의 격차도 극명하다. 전국 의과대학 수는 모두 40개교로, 지자체별로 ▲서울 8개 ▲강원·대구 각 4개 ▲경기·대전·부산 각 3개 ▲인천·충남·충북·경남·광주·전북 각 2개 ▲울산·경북·제주 각 1개 등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의대가 없는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의료인력도 태부족이다. 전남에는 뇌혈관·소아외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중요성이 더 커진 감염내과 전문의는 도내에 단 2명뿐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도 2020년 말 기준 10만명 당 1.7명으로 충북(1.3명)에 이어 최저 수준이다. 전국 평균 4.2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서울(9.0명)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전남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도 전국의 3.0%인 4,740명에 불과하며, 이들 중 637명은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로 채워져 있다.

의료접근성도 매우 취약하다. 동서 262.8km, 남북 175.9km에 이르는 넓은 면적에 2,165개 섬(전국 65%)으로 이뤄져 있어 긴급환자가 이송 중 사망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전남 276개 유인도서 중 의사가 없는 무의도서만도 164개(59.4%)에 이른다. ▶2면으로 이어짐 /오선우 기자

우상혁, 세계선수권 '은빛 점프'

2m35 넘어 한국 육상 새 역사

'스마일 점퍼'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밝은 표정과 경쾌한 몸놀림으로 '은빛 도약'을 했다. ▶관련기사 14면

우상혁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5를 넘어 2위를 차지했다.

2m37을 1차 시기에 성공한 '현역 최고 점퍼' 무타즈에서 바심(31·카타르)의 벽에는 막혔지만, 우상혁은 '세계 최정상급 점퍼'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국 선수 중 실외 경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는 20km 경보의 김현섭(2011년 대구 동메달), 단 한

명뿐이었다. 그러나 우상혁이 높은 벽을 경쾌하게 넘어서면서, 한국에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가 탄생했다.

2m35는 우상혁이 지난해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4위를 차지할 때 기록한 실외 남자 높이뛰기 한국 타이 기록이다. /연합뉴스



드림만남의 날 행사

19일 오후 광주시청 로비에서 열린 '12기 드림만남의 날'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참여 기업체와 사업장에서 상담, 면접 등을 통해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광주·전남 코로나 가파른 '재확산'

두 달여 만 3천명대 신규 확진

"손씻기 등 방역 수칙 준수해야"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개월여 만에 다시 3,000명대로 증가했다.

19일 광주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남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1,368명, 전남 1,658명 등 총 3,026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3,000명대는 지난 5월 10일 3,553명(광주 1,678명·전남 1,875명) 이후 2개월여 만이다.

같은 달 11일 2,777명(1,291명·1,486명), 12일 2,493명(1,099명·1,39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점점 감소해 6월에는 200명-800명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달들어 오미크론 하위 변위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확진자는 다시 증가해 지난 11일 1,416명(662명·754명), 12일 1,664명(814명·850명), 13일 1,650명(800명·850명), 14일 1,671명(816명·855명), 15일 1,701명(812명·889명), 16일 1,845명(937명·908명), 17일 1,127명(580명·547명)명으로 늘었다.

광주지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1,000명대도 지난 5월 12일 1,099명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전남도 같은 달 19일 1,019명이 감염된 이후 두달여 만이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18일까지 광주 54만7,375명, 전남 61만2,391명 등 총 115만9,766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확진자 증가와 함께 재감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손씻기, 환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채민 기자

해남군

민선8기 군정목표 및 방침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

GREAT LEAP, WORTH LIVING BEST HAENAM

01
소통공감
윤리경영

02
지속가능
미래농업

03
서남해안
관광중심

04
상생활력
균형발전

05
사람중심
나눔복지